

전통 · 창작 어우러진 무대 펼쳐진다

전주시립국악단, 국악의 날 기념 정기연주회 '부활IV' 5일 개최

전주시립국악단(심삼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은 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48회 정기연주회 '부활IV'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무대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전통예술의 계승, 그리고 새로운 창작의 에너지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이상규 전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작품에 대한 해설을 더해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의 시작은 황호준 작곡의 국악관현악 '나시 피는 녹두꽃' 서곡이 장식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과 '사립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사상을 담은 작품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희망과 생명력을 국악관현악의 울림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곡은 이지영 작곡의 소고춤을 위한 무용환상곡 '디딤'이 위촉 초연된다. 이 곡은

전통 소고춤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역동적인 춤사위와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김수현 작곡의 '한 여름 밤의 산책을 위한 오늘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편곡 초연곡 '단야', 위촉 초연곡 '청산유람', '동네 한 바퀴' 등을 통해 우리 정서를 담은 다채로운 노래를 들려준다. 이 무대에는 최경래 단원과 이주아 단원이 함께한다.

이어 이지연 전북대학교 교수가 협연자로 나서 서곡절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심수(心澗)'를 선보인다. 가야금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공연의 마지막은 이정호 작곡의 국악관현악 '아부레이수나'가 장식한다. 예천통명농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을 통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일반 5000원, 학생(초·중·고) 및 단체(20인 이상) 3000원으로, 나투컬처 누리집(www.nato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전주시립국악단 제248회 정기연주회 포스터

카드 및 다용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권희경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0부 '굿패와 죽음' (1)

이를 어찌해! 명희야!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명희가 죽은 후 순옥은 동네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명희를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세월이 변해서 무당을 미신이라 뭐다 했지만 나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희의 혼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명희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명희도 죽었고 무당을 내뱉으려는 마을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순옥도 연기마을에 머물 수 없었다. 명희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순옥은 찢먹이를 입고 동해원 마을에 가서 남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명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아이를 키울 사람은 남준 밖에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난감했다.

"뭐, 뭐라고요! 명희가 죽었다고요!" 담배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순옥이 왔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남준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를 어찌해! 이를 어찌해! 명희야! 명희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남준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숨이 넘어갈 것처럼 통곡했다. 찢먹이 아기를 업은 채 순임은 어쩔 줄 몰라했다.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남준의 울음소리에 놀라 아기도 함께 울었다.

"명희 언니가 낳은 아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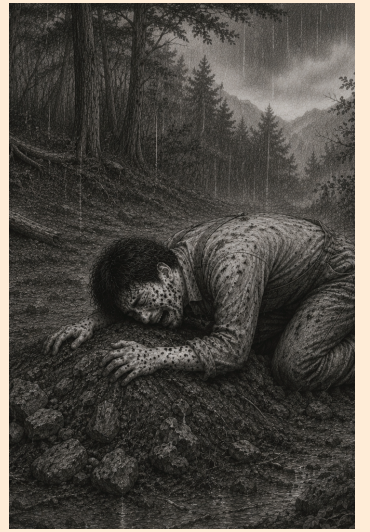
남준의 울음이 자자들자 순임은 아기를 등에서 내려서 남준에게 보여줬다. 남준은 아기를 뺨히 바라보고 차마 아이를 순임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갓난아기였다. 남준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였다.

아기는 울음을 그쳤고 남준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기는 남준의 어렸을 때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남준의 얼굴에서 울음이 자자졌고 미소가 번졌다. 내뺨에 걸려 영원히 천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던 남준 자신이 아기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순임은 명희나 남준과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아기를 순임이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없었다.

순임이 돌아간 후 남준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소의 젖을 얻어다가 끓여서 먹였다.

루이자 수녀와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지만 루이자는 반년 뒤에 돌



생상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아온다면서 마을을 떠나 전주 본원에 가 있었다.

명희의 무덤을 가봐야 했지만 아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없었다. 남준이 아기를 맡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읍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왔다.

"여기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아기를 우리한테 맡기세요."

보건소 직원들은 남준에게서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왜 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단 말이요!" 남준은 보건소 직원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전염되면 좋겠어요! 전염되어서 남준 씨처럼 되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요! 밖에서 키워야 정상인으로 클 수 있단 말이요!"

전염될 수도 있다는 말에 남준은 대항할 수 없었다. 보건소 직원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 데려가는 데도 남준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부터 남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방안에 칩거했다.

며칠 뒤 깊은 밤, 남준은 동해원을 떠나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갔고 도착한 곳은 연기마을 뒷산 공동묘지였다. 달빛에 새롭게 조성된 묘지가 보였다. 명희의 묘지였다.

"명희야! 으으으흑흑!"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남원여행 사진 이벤트'

남원시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남원여행 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먼저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는 서도역 일일에서는 '서도역 감성 사진관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도역의 정취를 느끼며 전문 사진작가로부터 여행사진 촬영 노하우를 배우고, 직접 스냅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6일 오전 11시 구 서도역(전북특별자치



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입구에서 시작되며, 이벤트 장소인 서도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도장터, 피크닉투어 등 다양한 감성여행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6월 중 사진작가가 서도역을 감

작 방문해 현장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인증하는 남원 여행 사진 SNS 인증 이벤트도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남원을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남원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남원여행'과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한 뒤, 게시글 URL을 네이버폼(링크 남원시 공식 인스타그램 참조)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예술회관, '전유진의 별빛 클래식' 19일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민을 위한 기획콘서트 '전유진의 별빛 클래식'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가수 전유진과 클라무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라무오케스트라의 뮤지컬 'Miss Saigon'을 시작으로 테너 민영욱의 '나의 품속에서 · 지금 이 순간 · 소프라노 김아름의 '그리운 금강산 ·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가수 전유진의 '축배의 노래 · 초혼 · 추억 속으로 · 올레'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전유진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부안군민에 한해 신분증 지참 후 부안예술회관 1층 사무실에서 선착순 300석을 현장 판매하며 잔여석은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부안군민 대상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